

부모 노이 2 워크숍

유아들의 꿈은
놀이에서 자란다

부모 노이 2 워크숍

유아들의 꿈은
노이에서 자란다



본 자료집의 사진은 자료집 제작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어떠한 용도로든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contents

I. 부모 워크숍의 개요 · 04

- 1 워크숍의 목적 · 06
- 2 워크숍의 구성 · 07

II. 놀이에 대해 알기 · 10

- 1. 놀며 생각하며 배우는 행복한 영·유아 · 12

III. 꽃으로 체험하는 놀이 · 21

- 1. 신문지를 활용한 놀이 · 22
 - 가. 신문지 안고 달리기 · 23
 - 나. 작아지는 신문지 섬 위에 서기 · 24
 - 다. 신문지 막대 뛰어넘기, 림보 · 25
 - 라. 신문지 격파, 찢기 · 26
 - 마. 신문지 공 · 27
 - 바. 신문지 야구 · 28
- 2. 풍선을 활용한 놀이 · 29
 - 가. 풍선 꾸미기 · 30
 - 나. 풍선 날리기 · 31
 - 다. 풍선 공놀이 · 32
- 3. 책을 활용한 놀이 · 33
 - 가. 책으로 길 만들기 · 34
 - 나. 책으로 탑 쌓기 · 35
 - 다. 책 도미노 · 36

4. 여러 가지 재료 사용한 놀이 • 37

가. 책 길 따라 풍선 물이 • 38

나. 책과 풍선으로 베드민턴 • 39

다. 책과 종이컵으로 탑쌓기 • 40

라. 수건과 리본으로 인형만들기 • 41

마. 신문지와 공으로 야구, 볼링 • 42

5. 기타 재료 놀이 • 43

가. 손수건 강강술레 • 44

나. 종이블럭 비석치기 • 45

IV 놀이에 대한 마요 • 46



제1부 부모용
부모 놀이워크숍



- 1.워크숍의 목적
- 2.워크숍의 구성

I 놀이 워크숍의 개요



1. 워크숍의 목적

예전에 비하여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지만 부모님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야 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영유아 자녀와 놀이를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놀아야 할지 막막한 부모님들을 위한 놀이 워크숍 자료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부모를 위한 놀이 워크숍의 목적은 첫째, 부모가 놀이를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의 부모가 직접 참여를 통한 놀이의 즐거움과 놀이를 통한 배움의 실재를 체감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모 놀이 워크숍의 두 번째 목적은 부모가 놀이의 가치를 마음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의 부모는 놀이 워크숍 참여를 통해 놀이의 감동과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얻은 놀이의 감동과 메시지는 영유아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와의 놀이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유아 부모 놀이 워크숍의 목적은 부모가 놀이의 지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는 놀이가 영유아의 발달에 기여하는 기능과 역할뿐만 아니라 놀이에 대한 태도, 실제 놀이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놀이를 위한 환경 조성, 의미 있는 놀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 놀이 워크숍의 네 번째 목적은 지역주도형 놀이중심 유아교육실천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유아의 놀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문가 집단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역차원에서 주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장과의 협력 강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 박물관 및 지역 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공기관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놀이를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의 부모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놀이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 워크숍의 구성

가. 워크숍 활동의 구성

영유아를 위한 부모 놀이 워크숍을 70분으로 구성할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30명 이하의 대집단이 여러 개의 소집단으로 나뉘어 활동하도록 합니다.

한 강사가 끝까지 한 소집단과 함께 활동하는 방식과, 한 소집단이

담당강사와 토론과 놀이 진행 후, 옆의 강사에게로 이동하는 순환방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 도입 단계에서 (좋은) 놀이의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재미/즐거움, 주도성/자율성, 창의력과 상상력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눕니다.

[표 1] 팀별 활동의 예

구분	시간 및 집단 형태	세부 내용
1. 도입	(5) 대집단	1) 참석한 학부모간 친밀감 조성 (예, 칭찬스티커, 율동) 2) 생활 속 놀이에 대한 tip 제공 (기차, 식당 등 공공시설에서의 간단한 테이블놀이) 3) 학부모들의 놀잇감 선택(* 놀이선택의 주도성 강조) - 특정 놀이(놀잇감)를 선택한 이유/ 머뭇거린 이유 등 (*이때 강사는 부모의 체험을 유아의 놀이와 연결: “아이들도 부모님과 같이 이것 저것 모두 놀고 싶어 빨리 결정내리기가 어려워 머뭇거리다가 놀잇감을 놓치기도 합니다” 등)
2. 문제 제기	(15) 소집단	1) 부모의 놀이경험 이야기하기 - 부모가 어릴 때 좋아했던 놀이는 무엇이며, 누구와 하였는가, 왜 즐겨했는가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기 2) 자녀와의 놀이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정에서의 놀이 장애 요인 또는 애로사항 - 부모의 시간부족, 놀이방법이 제한적, 공간상의 문제 등
3. 놀이 계획	(5) 소집단	1) 놀이에 대한 아이디어 모으기 (브레인스토밍) - 부모가 선택한 놀잇감으로 할 수 있는 놀이 고안하기 (9-10인 소집단이 집중적으로 단시간에 다양한 놀이방법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 - 고안한 놀이방법을 각각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기 2) 고안한 놀이 방법을 부모들간 공유하기

구분	시간 및 집단 형태	세부 내용
4. 놀이 계획	(40) 소집단	1) 소집단별 고안한 중 선택하여 놀이를 직접 해보기 - 1가지 놀잇감으로 놀이하기 - 2~3가지 놀잇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놀이하기 * 놀이활동별 약 10~15분정도 소요
5. 마무리	(5) 대집단	1) 소그룹별 창안한 다양한 놀이에 대하여 공유하기 2) 놀이평가 - 워크숍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 좋았던 놀이 - 내 아이와 함께 놀기에 적용 / 활용하고 싶은 점 등





1. 놀며 생각하며 배우는 행복한 영·유아

II 놀이에 대해 알기¹⁾



아이들에게 놀이가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부모님이 많이 있습니다. 놀이가 무엇인지,
놀이와 영유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부모나 성인이 아이들의 놀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동영상

1. 놀며 생각하며 배우는 행복한 영·유아

가. 잘 노는 아이가 공부도 잘 한다.

“아이들이 열심히 놀면 공부를 못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모님, 그리고 성인들의 착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이들에게 놀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이에 대한 착각은 주변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잘 노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의 생각보다 이런 사례는 경험적으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허미애 (2018) 놀며 생각하며 배우는 행복한 영·유아, 유아 놀이를 위한 부모 워크숍 특강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놀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권할만한 “좋은” 놀이는 학습에 도움을 주는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놀이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수 개념을 익히는 놀이를, 영어도 배울 수 있는 놀이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놀이와 공부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공부 다 했어? 숙제 다 했어? 그럼 놀아”라고 합니다. 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둘로 나뉘어서 놀던지 공부하던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부니까 공부를 다 했으면 놀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놀이가 과연 공부와는 상반된 개념일 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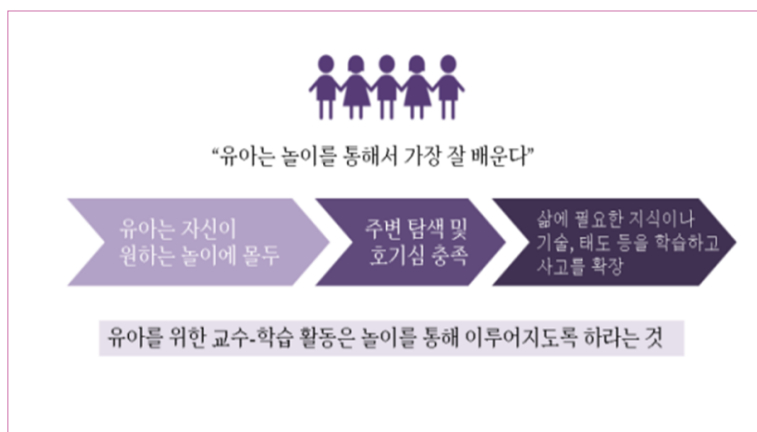
|그림1| 놀이 중심의 원리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및 발달 전문가들은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놀이를 통해서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어가 강조되는 사회이니까 영어 놀이, 수학도 중요하니까 수 놀이, 논리적 사고력이 중요하니까 언어 놀이…”와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갖는 놀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가 스스로 원해서 즐겁게 선택하는 놀이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놀이입니다.

나. 배우기 위해 노는 것이 아니라 놀기 위해 노는 것이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놀이를 제안하며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바란다면 이는 놀이가 아니라 학습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놀이를 하는 것은 진정한 놀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놀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즉 놀이의 목적은 놀이 그 자체로 즐거움을 얻을 때 비로서 그것을 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일인데



정작 아이들에게는 놀이일 수 있고 (툼 소이어의 모험에서 담장에 페인트 칠을 하는 장면처럼), 놀이가 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장난감 소개 유튜브).

“놀이라고는 하나, 놀이가 아닌 것이 있고
놀이가 아닌 것 같으나, 놀이인 것도 있다.”

놀이에 대한 성인(부모/교사)들의 신념과 놀이개입방법에 따라,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하루 일과 속에서
유아의 놀이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면 유아의 놀이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다. 잘 노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다.

아이가 태동을 나에게 전해줬다는 것은 그 아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 움직인다는 증거입니다.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뛰어 노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가 논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한편 사람이 무너질 때 극복할 수 있는 힘 역시 놀이에서 나옵니다.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놀이가 준다고 하면 이해하실까요? 즉 잘 놀아본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힘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림 2 | 잘 노는 아이의 행복

제대로 잘 노는 유아는 자기존중감과 더불어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춘 행복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행복한 아이는 자신감 속에서 창조적이고 상상적인 놀이를 더욱 잘 하게 됨으로써 놀이를 통한 즐거움과 만족감 속에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



도남희·배운진·김지예(2014)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 연구'-유아의 주관적인 행복감 수준은 학습을 지겨워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낮아지는 반면, 충분한 자유놀이 시간을 가지는 유아일수록 주관적인 행복감 수준이 높았고,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 및 놀이 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유아들은 그렇지 않은 유아들보다 스스로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과연 아이들의 꿈을 지지하고 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내 아들이 집에 와서 의자를 붙여 놓고 기관차 놀이 하는데 기뻐하실 부모님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라. 바람직한 혼자 놀이

부모님은 자녀에게 “혼자 놀라”고 하는 말은 시의 적적하게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일을 하면서 “너 혼자 놀아”라고 하는 것과,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을 테니 네가 놀고 싶은 대로 놀아봐” 라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엄마가 다른 일에 열중하면서 “너는 다 컸잖아, 혼자 놀아”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와 놀기 싫으니 날 좀 가만 놔둬”라는 뜻입니다. 즉 말은 “혼자 놀아라”이지만, “넌 귀찮아”라는 뜻으로 읽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모님이 같이 놀아줄 마음도 있고, 조건도 되지만 “이 건 네가 혼자 해보면 더 좋겠어”라는 의미로 혼자 놀 것을 제한한다면 아이는 혼자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자녀가

혼자 놀이를 꺼려한다면 혹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억지로 놀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놀게 해야 합니다.

마. 개입이 필요한 놀이 상황

때로는 아이들의 놀이에 부모나 성인이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악당놀이가 재밌으니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아이에게 악당놀이를 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못하게 해야 할까요? 악당놀이를 만일 친구와 같이 하고 싶다면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친구들이 좋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친구들이 싫다고 하면 멈춰야 한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교수-학습 활동에 '놀이중심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



방임 (X)

발달에 적합한 놀이 환경



유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바. 놀이를 통해 성장하는 아이

친구가 많지 않은 아이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를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너 미워”하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입을 하고 싶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개입할 수 없었는데,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왜 그런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한 아이는 ‘친구들이 너만 좋아하고 나랑 안 놀아주니까 내가 속상하잖아.’라고 말했습니다. 3세 아이가 벌써 인기 있는 아이가 있고 거기서 소외를 느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는 거기서 왜 소외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 인기 있는 아이를 질시하는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은 놀이를 해야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부모가 친구인 척하고 하는 놀이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감정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렇지만 내가 널 좋아하잖아.”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인기가 없어서 서운하게 생각했던 그 아이가 금방 좋아져서 다시금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사. 충분한 탐색의 시간, 성인의 기다림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새 놀잇감을 내어 주고 일주일의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놀잇감을 치웠더니 “선생님 그런데 그거 어땠어요?” 라고 찾았던 한 유아가 있었습니다. 이 유아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 탐색을 길게 하고 ‘저 놀이감은 이렇게 노는거구나’ 전략을 세우고 노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보여주자마자 달려드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알 수 있는 것은 유아들의 성향이 다른 것이지 별난 유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죠, 탐색도 놀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 줘야 하는 겁니다.

충분한 놀이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몰입할 때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놀이판을 깔자마자 “이제 치워!”라고 하면, 몰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놀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아들이 며칠에 걸쳐 사탕가게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교사는 유아들에게 돈의 개념을 소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놀이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교사: 사탕 주세요 이 사탕 얼마예요?

아이: 이건 서비스에요!

교사: (당황하며) 이거 얼마예요?

아이: 돈 안받아요.

교사: 사탕을 사러 왔는데 돈을 받으셔야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와 교사들은...

성인(부모/교사)들은 유아가 하는 놀이의 본질을 이해하고, 유아의 놀이상황에서 놀이의 본질이 지켜지도록 노력하되 유아의 놀이에 무조건 개입하기보다는 먼저 충분한 관찰을 함으로써, 놀이 지원을 위해 성인(부모/교사)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유아의 놀이에 들어가고 다시 나오는 중재기술을 연마할 필요가 있다.

성인들은 유아에게 놀이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아와 함께 즐겁게 놀면서 유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놀이를 지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돈의 개념을 가르치려고 시도했지만, 유아는 사탕을 홍보하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의 1차 중재 시도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돌맹이 사탕을 팔던 아이는 사탕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종이와 펜을 사용해 종이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유아들은 은행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아들은 돌맹이 사탕놀이를 통해 교사의 중재를 넘어 사탕의 홍보와 판매, 그리고 은행놀이까지 확장된 놀이를 하였습니다. 유아의 놀이는 충분한 시간, 그리고 성인의 기다림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유아들의 놀이입니다.



III

문으로 체험하는 놀이



1. 신문지를 활용한 놀이
2. 풍선을 활용한 놀이
3. 책을 활용한 놀이
4. 여러 가지 재료 사용한 놀이
5. 기타 재료 놀이

III

몸으로 체험하는 놀이



부모님이 놀이 워크숍에서 가장 선호하는
3가지 놀이 재료는 신문지, 책, 풍선이었습니다.

1. 신문지를 활용한 놀이

신문지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놀이를 마친 후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정리만 잘 한다면 그만이겠죠?

얇은 종이에 불과하지만 이를 뭉치거나 말기도 하고, 찢거나 접는 등 신문지를 이용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신문지의 이와 같은 성질들을 탐색하며 어떤 놀이가 가능한지 실험하고, 다양한 놀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 신문지 안고 달리기



신문지를 가슴에 안고 달리면 손으로 잡지 않고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Tip 1 지나치게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신문지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달리는 것을 즐기는 것이 목적!

Tip 2 부모님이나 성인이 유아와 경쟁 놀이를 할 때는 일부러 저주는 것보다 handicapping 을 적용해 아이가 앞에서 출발하게 하는 등 함께 즐기는 것이 좋아요.



나. 작아지는 신문지 섬 위에 서기



노래를 부르며 신문지 주위를 돌다가 노래를 마치면
신문지 위로 올라가는 놀이입니다. 성공하게 되면 다시 신문지를 반으로
접어 놓고 반복하는 놀이입니다.

Tip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점점 줄어드는
신문지 위에서 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익히고 자녀와
스킨십을 늘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 신문지 막대 뛰어넘기, 림보



신문지는 얇고 가벼운 소재이지만 이를 동그랗게 말아서 사용하게 되면 긴 막대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신문으로 긴 막대를 만들어 이를 뛰어 넘는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놀이가 반복될수록 부모님들이 넘어야 할 막대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모님이 너무 높아진 막대 아래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이는 갑자기 림보 게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Tip 놀이를 통해 규칙을 배우기도 하지만 이처럼 우연히 규칙을 변화해 더 재미있는 놀이로 발전시키거나 수준에 맞게 난이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라. 신문지 격파, 찢기



이 놀이는 신문지의 잘 찢어지는 성질을 활용한 놀이로,
손으로 몇 겹의 신문을 격파하는 놀이입니다. 펼쳐진 신문을 주먹으로,
혹은 손바닥을 펴고 신문을 격파하는 놀이입니다.
부모님 역시 아이가 신문을 찢는 것이 아니라 격파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팽팽하게 신문을 당겨주면 좋습니다.

Tip 아이가 쉽게 격파하면, 회를 거듭할수록 신문을 여러 장 겹쳐서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 신문지 공



신문지를 뭉쳐서 둥글게 만들면 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큰 신문지를 말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신문지를 잘게 찢어서 이를 뭉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이 필요할 때 신문지 공을 간단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문지 공은 가볍고 보통 공에 비해서 탄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좁은 실내에서는 탄성이 낮은 신문지공이 유아가 실내에서 더욱 안전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Tip 신문지를 자르고 찢기, 뭉치기, 폴로 붙이기 등으로 공을 만드는 과정도 놀이가 될 수 있어요.



바. 신문지 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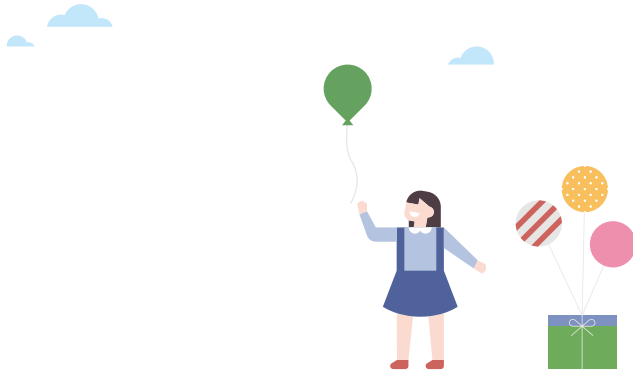
신문지로 공 뿐만 아니라 막대나 방망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신문지를 말아서 만든 방망이와 공으로 야구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자칫 다치거나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신문지로 만든 방망이나 공이라면 걱정 없겠죠?

Tip 신문지 야구놀이뿐 아니라 방망이로 공굴리기,
정해진 장소에 공 옮기기 등으로 응용할 수 있어요.



2. 풍선을 활용한 놀이

풍선은 가볍고, 바람을 이용해 움직일 수 있어서 유아들이 좋아하는 놀잇감이 됩니다. 또한 풍선은 다양한 색상과 모양, 크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아들이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어서 놀이 내용이 다양합니다. 풍선을 이용해 자녀와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 활동이 다양합니다.



가. 풍선 꾸미기



풍선 꾸미기는 풍선에 매직이나 네임펜으로 얼굴을 그리거나 꾸밀 수 있으며, 글자를 쓸 수도 있으며 점착테이프를 이용해 색종이나 실, 형검 등의 재료를 붙여 꾸밀 수도 있습니다. 유아들은 종이가 아닌 것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Tip 1 풍선에 그림을 그릴 때는 풍선을 분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풍선을 불기 전에 그림을 그리고 풍선을 부풀려 그림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어요.

Tip 2 풍선으로 공놀이나 축구를 한다면 풍선에 축구 공 모양을 그려 넣어 더 재미있게 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나. 풍선 날리기



풍선을 불어 부풀린 다음 끝을 묶지 않고 공중으로 날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놀이인가 싶을 수 있지만,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풍선을 날리며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Tip 풍선 날리기, 날아가는 풍선을 쫓아 다니기, 풍선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잡기와 같은 놀이로 응용할 수 있어요.



다. 풍선 공놀이



풍선은 너무 가벼워서 공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오히려 가볍기에 공보다 더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풍선은 성인이 있는 힘껏 차더라도 멀리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인과 유아 간에 공을 다루는 기량차이가 조금은 상쇄될 수 있습니다. 한편 풍선에 공 모양을 그려 넣어 풍선을 보다 그럴듯하게 꾸민다면 풍선 공을 사용한 공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Tip 풍선을 작게 불어 핸드볼, 피구와 같은 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풍선에 물을 넣어 물 폭탄을 만들거나, 풍선에 공을 넣어 공주머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책을 활용한 놀이

책을 이용한 놀이는 영유아가 책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며, 물리적인 성질을 활용해서 놀이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책은 기본적으로 읽기위한 도구이지만, 책을 놀이에 이용할 때는 책의 기본적인 기능인 읽기에 활용하는 특성뿐 아니라 물리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놀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책을 조심히 읽고 다루어야 한다고 부담감을 느껴서 책읽기가 싫었던 아이에게 책으로 놀 수 있다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책을 친근하게 여기게 하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놀이를 하더라도 던지거나 찢는 등 책을 함부로 다루지는 않도록 합니다.



가. 책으로 길 만들기



책의 납작한 형태를 이용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길은 장난감 자동차가 다니는 길일 수도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외의 다른 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길의 형식에 있어서도 타일을 이어붙이듯 포장된 도로 모양의 길을 만들 수도 있고, 징검다리와 같이 띄엄띄엄 밟고 다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딱딱한 표지를 갖은 책들을 이용해 벽을 쌓아 밟고 다닐 길을 안내하는 형태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 책으로 탑 쌓기



책은 쌓기 놀이의 좋은 소재가 됩니다.

특히 책은 작은 블록들로는 만들 수 없는 큰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책을 높게 쌓아 성이나 탑과 같은 높은 구조물을 만들어 구조물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성을 만들어서 역할놀이를 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 책 도미노



책을 블록처럼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책으로 도미노를 만들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판매되는 도미노는 크기가 작아서 유아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책은 부피가 커서 유아들이 도미노를 세울 때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도미노를 완성하고 이를 쓰러뜨릴 때도 움직임이 커서 그 기쁨이 색다릅니다.

Tip 책을 세로로도 가로로도 세울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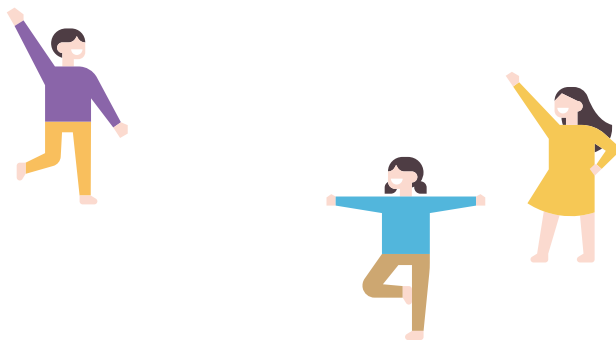


4. 여러 가지 재료 사용한 놀이

앞에서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세 가지를 활용하여, 영유아 자녀와 함께 놀이에 응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소개드린 일부의 사례들 외에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상황과 경험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한 방법으로 놀이에 응용할 수 있고, 또한 자녀와 함께 놀이를 탐색하는 과정도 즐거운 놀이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가지 재료만을 사용해 놀이에 적용하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는데, 다음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이용해서 자녀와 놀이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놀이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이용해 놀이에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한 가지 재료로 놀이를 하다 다른 방법으로 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다른 재료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한 놀이의 예 이외에도, 자유롭게 주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놀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책 길 따라 풍선 물이



책으로 책 길을 만들고 그 위에 풍선을 올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부채질을 하거나 입으로 바람을 불어 풍선이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하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직접 책 길을 걸어보는 놀이에서 착안한 활동인데,
책 위를 걷는 단조로운 활동에서 풍선을 바람으로 날려 책 길 위에서
이동하도록 확장된 놀이입니다. 이후 풍선이 책 길에서 자주 이탈하게 되어
보자기를 추가하여 풍선 나르기 놀이로 다시 확장되었습니다.

Tip 놀이가 의도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양한 형태로 변형해보아요.



나. 책과 풍선으로 베드민턴



풍선은 공처럼 손이나 발로 치며 놀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라켓으로, 혹은 책을 라켓 삼아 놀이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풍선은 아무리 세게 쳐도 멀리 날아가지 못하며,
또한 빠르게 날지도 못합니다.
유아의 파트너가 된 부모님은 무릎으로 걷거나 유아가 사용하는
도구보다 어려운 도구를 사용하는 핸디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는 책으로, 부모는 머리로 풍선을 옮길 수 있습니다.



다. 책과 종이컵으로 탑쌓기



책과 종이컵을 사용해 탑 쌓는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이용해 탑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컵을 이용해 또 다른 모양의 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과 컵을 함께 사용하면 보다 흥미로운 쌓기놀이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Tip 표지의 그림이나 글자, 종이컵의 색상이나 크기를 고려하면서 스토리가 있는 건축놀이를 발전시키면서 흥미를 더해가게 됩니다.



라. 수건과 리본으로 인형만들기



수건과 리본, 테이프를 이용해 여러 가지 만들기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수건을 뭉치거나 접고 이를 원하는 형태가 되도록 리본 테이프로 묶어서
인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건 외에도 양말이나 장갑, 손수건 등을 이용해
원하는 인형이나 형태를 만들어 놀 수 있습니다.

Tip 수건으로 만든 인형을, 한 두번 역할 놀이에 사용하고,
다시금 펼쳐서 수건으로 사용할 수 있듯이,
수건으로 인형 뿐 아니라 베개를 꾸미거나 원하는
만들기 놀이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마. 신문지와 공으로 야구, 볼링



신문지로 만든 놀잇감과 공이나 콩주머니 등 다른 도구를 함께 이용해
놀 수 있습니다. 신문지로 야구방망이나 볼링핀을 만들어 야구놀이와 볼링
놀이를 흥미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신문지로 야구방망이와
볼링핀을 단단히 만드는 방법을 의논하면서 만들 뿐 아니라 다른 도구를
사용해 보다 야구놀이답게, 보다 볼링놀이답게 놀이하러 노력하고 놀이
방법을 변형시켜가며 더욱 즐겁게 놀이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재료 놀이

가정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고 비용 면에서 부담이 없는 재료들을 활용한 놀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재료로 신문지, 풍선, 책을 소개하고, 이들 재료들을 포함해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사례도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 재료는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평소 놀이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거나 혹은 놀잇감이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재료들을 통해서 놀이하는 사례를 일부 소개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놀이의 소재를 찾는 것도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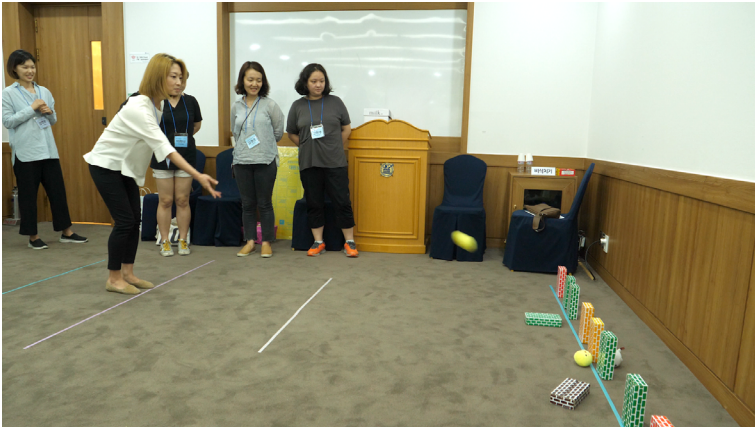
가. 손수건 강강술레



손수건은 접기, 모양만들기, 묶거나 매듭짓기, 물건싸기,
우리 몸에 착용하기 등 다양한 적용이 가능한 놀잇감이 됩니다.
여러 장의 손수건을 각각 묶어 원하는 길이로 만들 수 있으며,
끝자락까지 묶으면 동그란 원형이 되어 서로 잡아당기는 놀이 또는
강강술레 놀이 등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나. 종이블럭 비석치기



종이블럭을 이용해 비석치기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비석치기 놀이에 사용될 종이블럭은 우유곽이나 과자상자를 이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Tip 1 종이블럭 외에도 자녀의 연령이나 흥미에 따라 크고 작은 나무 블럭이나 플라스틱 블럭을 사용할 수 있어요.

Tip 2 굴려서 쓰러뜨리기, 던져서 쓰러뜨리기, 바람을 불어 쓰러뜨리기 등 놀이방법을 변형시켜서 보다 흥미롭게 놀이할 수 있어요.



IV

놀이¹에 대한 마음⁰



IV 놀이에 대한 마음



놀이 워크숍에 참여한 부모님들은 놀이에 대한 느낌이 평소와 다르게 매우 진지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마음에 담은 놀이 소감은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잘 노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부모님들의 놀이에 대한 마음을 들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교육은 학교폭력이라
충격 받았었는데, 유치원의 놀이 체험은 좋네요.

엄마가 해주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놀이할 수 있다니, 놀라워요.

놀이 워크숍 통해서
샘솟는 아이디어 얻어가요.

엄마가 해주지 않아도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아이와 저,
둘 다 즐겁게 놀아보렵니다.

서랍장 속 풍선, 오늘 꺼냅니다!!

한 가지로 10개 놀이를 할 수 있다니,
재밌는데 돈도 절약? 일석이조, 고마워요~

듣는 것 뿐 아니라 집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놀이 워크숍에 참여한 부모님들은 놀이에 대한 느낌이 평소와 다르게 매우 진지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마음에 담은 놀이 소감은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잘 노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부모님들의 놀이에 대한 마음을 들어 보았습니다.

책으로 할 수 있는 놀이가 진짜 많네요!
저는 그동안 뭘 한 걸까요?

놀이 체험해봤는데 꼭 해보세웁!

어릴 적, 제가 했던 놀이도 다시 하니 재밌네요?
아이들과 오늘부터 놀겁니다.

제대로 된 실내 놀이가
열 체험학습 안 부럽다!

놀이 박사님 좀 돼보렵니다.

많이 배우고 엄마로서 제대로 역할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했는데,
뒤 돌아서니 몽클! 울컥!

앞으로는 놀아주지 않고, 같이 놀아야겠어요.

어느새 아이들과 같이 놀고 싶어지네요.

저는 너무 불친절한
엄마 였군요... 반성합니다.

'잠깐이라도 놀아주는 게 중요 하구나' 생각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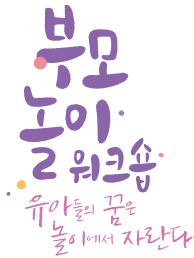


집필진

-
- | | |
|--------------------------------|-------------------------------|
| •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 박원순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 • 강은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 김희수 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
| • 도남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
-

연구협력관

-
- | | |
|---------------------------------|-----------------------------------|
| • 문복진 연구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 김미진 교육연구사(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
-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처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www.moe.go.kr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이 책을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모
노이
2 워크숍
유아들의 꿈은
눈에서 자란다